

목포에 장애어린이 재활센터 들어선다

중앙병원에 2024년 개원 목표
복지부 공모 선정...서남권 최초
하루 소아입원 병상 20개 규모
장애아동 지역 치료·재활 가능

목포에 전남 서남권 최초 공공어린이 재활의료 센터가 건립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

업'에 목포중앙병원이 최종 선정돼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오는 2024년초 개원을 목표로 총 72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재활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병원기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모는 1일 소아입원 병상 20개, 외래환자 30명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재활치료,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에 따라 집중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 내 치료와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 또 생애주기별 정기 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전남 서남권 장애아동은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으로 장애아동이 거주생활권에서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증 장애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목포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큰 호응

수확철 맞아 37개 영농회 순회

목포농협이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농협은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트랙터, 콤팩트, 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15일까지 지역 37개 영농회를 순회하면서 고장수리와 농기계 성능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사진> 하반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여름철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침수되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하고 본격 수확철을 앞두고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기계 점검을 실시해 농민들이 적기

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간단한 자기수리법, 농기계 사용과 관리법 등 관련 교육도 병행해 조합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지속적인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과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등 영농서비스를 전개해 조합원의 편의증진과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태풍과 잦은 강우로 수확량 감소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병해충 관리 등 철저한 계획관리를 통하여 풍년 결실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 군청사에 300k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연간 5000만원 어치 전기 생산

신안군은 군청사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 발전시설은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설치했다. 군청사 주차장 3440㎡ 부지에 발전용량 300kW 규모로 국비 2억5400만원, 군비 4억2200만원 등 총 6억7600만원이 투입됐다.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38만6535kWh다. 전기요금으로 따지면 연간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군청사 전기요금의 18% 수준이어서 향후 군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통한 연간 171t의 CO₂ 온실가스 절감효과와 소나무 약 2만7393그루의 식재효과와 맞먹는 친환경 발전시설이다. 한편 신안군은 민선 7기 1호 정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의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신안군이 군청사 주차장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식.

지난 4월 26일 안좌면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120MW급) 건립으로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업동조화에서 1분기와 마찬가지로 7월 22일 2분기 배당금을 주민 전체(2935명)에 51만~12만원까지 지급했다. 앞으로도 매 분기 지급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양광발전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며 "우선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다하고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한빛원전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분부는 최근 한빛원전 본관에 특설 매장을 설치해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펼쳤다. <사진>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발전소 인접 농협인 굴비골농협과 함께 한빛원전 주변지역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빛원전 임직원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농·축·수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좋다"며 호감을 표했다. 굴비골농협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지역 농축수산물 품질과 맛을 한빛원전 임직원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 기쁘다"며 "농축수산물 중사자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빛원전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장보기 행사' '지역식당 이용의 날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상생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급여 쪼개고 시상금·포상금 쾌척 해남군 공무원 장학기금 동참 행렬

2월부터 500억원 조성 추진
주민·단체·기업 기부도 활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공직사회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해남군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재원 마련과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 업무협약을 비롯해 각계각층 주민·단체들의 장학사업기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청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활발히 일고 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로로 올 상반기 선정된 모범공무원 4명은 상급 전액을 장학사업기금으로 기탁했다.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경제산업과 직원들도 포상금 전액을 기탁했다.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새내기공무원 15명이 임용 1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모았다. 전남도에서 해남군으로 2년간 교류 근무한 전

창우 해양수산과장도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장학사업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퇴직하는 날까지 매달 월급의 1%를 기탁하기로 한 공직자를 비롯해 40여명의 공무원들이 매월 정액을 기탁하는 등 정기적인 기탁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명현관 해남군수도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빈손으로 들어와 군민의 사랑을 받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받아왔던 봉급 2억4800만원 전액을 기탁했다. 연말에는 군 공직자 전체의 복지포인트 미사용분(소멸)에 대한 기탁도 일괄 이루어질 계획이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지역 6개 업체와 협약을 비롯해 개인, 가족, 단체 등 70여건, 총 3억2000만원의 기탁을 통해 범군민운동으로 확대되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공직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